서울서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양국 경제협력 관계 2가지 발전방향 제시무역·투자 외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희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중국 양국은 공급망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과 중국은 각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최 부총리는 “존경하는 정산제 주임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중국 대표단 여러분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그는 “양국은 코로나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는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찐린)인 한중이 32년 지기 오랜 친구(라오평유) 관계를 유지해 오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022년 8월 열렸던 17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중국측 제안으로 작년 11월 개최된 제1회 경제협력교류회는 기업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측 제안으로 개최된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는 최초의 한‧중 공급망 협의채널로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며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규모는 각각 역대 최고인 약 49배와 72배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교역 품목 다변화와 배터리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 투자의 증가 등 교역‧투자 관계의 질적 개선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양국 관광객 또한 올해 1분기에 큰 폭으로 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문화적·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 3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향후 한중 경제협력 관계의 2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은 악기들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많은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고 한‧중 공급망 또한 넓고 깊은 양국 관계만큼 촘촘히 이어져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다음으로 무역‧투자 등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 간의 교류‧협력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확대‧발전돼야 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기업 진출 장벽을 낮추고 신뢰 가능성을 높여 양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정산제 주임님과 양국 대표단 여러분. 글로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 상황에서 한중 간 협력 강화는 역내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다가올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핵심 성과들을 잘 관리해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